

## 5·18 기념식

### 임을 위한 행진곡 올해는 부른다

올해 5·18 31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다.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오는 18일 보훈처 주관으로 광주시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가 부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기념식 마지막 부분에 참가자들의 합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외돼 기념식이 돌로 갈라져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광주시, 5·18단체 등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수현기자 yang@



비 내린 오후의 수채화  
늦은 봄비가 내린 11일 뿌연 안개로 뒤덮인 무등산 바람재를 찾은 등산객들이 등산로 한 켠에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빨간 철쭉을 바라보며 빗속 산행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송정 KTX 환승센터 '공익제로' 우려

### 사업비 5000억중 국비 10%에 그쳐 민자 투자자 상업성 극대화 불가피

광주송정역을 국가 기간 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로 지정한 정부가 5000억원대의 총 사업비 가운데 10%만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머지 사업비를 대부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광주시로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부동산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원활한 투

자유치를 위해 투자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KTX의 광역역 정차여부에 대한 지역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광주시가 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그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최근 5억원의 사업비로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을 맡을 우선협상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용역자문위원회 워크숍 및 기술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 광역역의 KTX 정차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주송정역에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광역역과 광주송정역의 승하차 승객 수는 각각 190만5208명과 148만6396명으로, 이를 역의 유동인구를 어떻게 분산 또는 집합시킬 것인지에 불확실하다. 환승센터가 들어설 광주송정역은 수도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크게 적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가 우선협상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엔지니어링업체는 물론 민간 부동산건설업체까지 포함시킨 것도 수익성을 최대한 높여 투자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액이 너무 적어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는 광주송정역과 그렇지 못한 광역역과의 역할 및 기능의 부담, 향후 광역역에 대한 추가개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현배기자 chadol@kwangju.co.kr

## MB 불참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국가 기념식에 3년 연속 불참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광주 항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 알림

### 금융투자 CEO들과 함께하는

##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

광주일보사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와 공동으로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투교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5개 증권 유관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국내 유일의 투자자교육 전문기관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목포·순천·여수를 순회하는 이번 특강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투자업계 CEO들이 나서 금융시장의 이슈와 경제전망은 물론 가치투자의 진수를 제시할 것입니다. 애독자와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료는 없으며 강의 책자는 현장에서 무료 배포합니다.

### 투자자교육협의회 공동 목포·순천·여수 순회 특강

#### ◇목포 아카데미

- 5월 19일 오후 4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제 = '최근 금융시장 이슈 및 하반기 전망'
- 강사 = 고성일 본부장(동양종합금융증권 호남지역본부) 광주일보, 국민대, 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센터 압구정지점장, 서초지점장



#### ◇순천 아카데미

- 6월 9일 오후 4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주제 = '세상의 변화와 함께하는 가치투자'
- 강사 = 강방천 회장(에셋플러스자산운용) 목포고, 한국외대, 상용투자증권 권드매니저, 에셋플러스투자자문 대표이사



#### ◇여수 아카데미

- 6월 30일 오후 4시 여수시청 1층사 대회의실
- 주제 = '글로벌 금융이슈 및 하반기 세계경제'
- 강사 = 조병문 전무(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연세대,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KB증권 상무



光州日報社

## “과학벨트 후보 5곳 어디?” 지자체 촉각

국립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중간평가 결과는 물론 회의장소도 공개하지 않아 광주를 비롯한 10개 유치 후보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학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확정된 1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반·재해 안정성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과학벨트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별, 정치권별 논란이 거일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날 평가위 회의 결과는 물론 회의 장소와 시간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 과학벨트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의 계획에는 5개 이내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개별 입지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당장은 합산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후보지별 정확한 평가결과를 현재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JOYTRAVEL 234-3222  
광양혜리로 떠나는 일본 큐슈4일 “선착순 한정특가”  
5월29일 단하루!! 전통료칸 1박 ₩198,000  
4일 야나가와 뱃놀이&규슈온천여행 ₩ 299,000원~  
4일 일본의 전통료칸 카이세키요리를 맛볼수 있는 온천여행 ₩ 399,000원~  
4일 오사카,와카야마 ₩ 699,000원~  
광주출발 6일 대련 심양 백두산 고구려유적 ₩659,000원  
무안출발 4일 무안 - 상해, 행주, 주가 ₩269,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액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원금 가입(해외상품: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예약시 계약서(주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주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